

인공수정과 대리모의 은유로 본 회화창작 주체의 재구성

Reconstructing the Subject of Painting through the Metaphor of In Vitro Fertilization and Surrogacy

정규리¹

Curie Chung¹

요 약

본 연구는 <Soarin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I 시대 회화창작에서 작가성과 주체성의 귀속 구조를 이론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에서는 프롬프트 설계를 ‘창작의 수정란’으로 개념화하며, 이를 창작의 핵심적 설계 행위로 정의하였다. 수백 개의 AI 생성 이미지 중 하나를 인간의 감각과 판단으로 선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예술적 실천으로 간주함으로써, 기획자의 단독 작가성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창작 구조에서 AI는 계산적 번역 장치로, 화공은 외주 실행자로 위치하며, 이는 ‘인공수정과 대리모’라는 은유적 구조로 체계화될 수 있다. 솔 르윗의 개념미술 이론, 미드저니의 저작권 정책, 그리고 현대 예술계의 제작 위임 모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작품의 물리적 실현 이전 단계에서도 기획자의 창작자 지위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본 연구는 AI 협업 시대에 창작 구조와 작가성 기준의 재구성을 시도하며, ‘예술가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철학적이고 법적인 사유의 틀을 제안한다.

핵심어: 기획자, AI 예술, 작가성, 미드저니, 민화, 저작권

Abstract

This study theoretically investigates the structure of authorship and the attribution of subjectivity in painting creation during the AI era, focusing on the Soaring project. The research conceptualizes prompt engineering as the ‘fertilized egg of creation’, defining it as a core act of conceptual design within the creative process. By considering the selection and semantic interpretation of a single image-among hundreds generated by AI-through human perception and judgment as an act of artistic practice, the study seeks to justify exclusive curatorial authorship as a legitimate model of authorship. Within this creative structure, AI functions as a computational translation device, and the traditional painter (hwa-gong) is positioned as an outsourced executor; this model is structurally framed through the metaphor of ‘in vitro fertilization and surrogac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Sol LeWitt’s conceptual art theory, Midjourney’s copyright policy, and the delegated production models prevalent in contemporary art, the study argues that curatorial authorship can be sufficiently justified even prior to the physical realization of the work. This research attempts to reconstruct the creative structure and criteria for authorship in the age of AI collaboration, proposing a philosophical and legal framework to address the fundamental question: ‘Who is the artist?’.

Keyword : curatorial authorship, AI art, Midjourney, Minhwa, copyright

¹ Department Painting,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e-mail: curiechung11@iscu.ac.kr

Received(May 26, 2025), Review Result(1st: June 7, 2025), Accepted(June 9, 2025), Published(June 30, 2025)



© 2025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1. 서론

1.1 연구 배경

21세기 후반, 생성형 AI의 발전은 예술 창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특히, 미드저니와 같은 텍스트-이미지 생성 도구의 등장은 예술가가 손의 물리적 수행 없이도 이미지의 기획과 구성을 통해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작가성이 ‘수행’ 중심에서 ‘설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미학적 및 윤리적 재정의의 요구한다. 생성형 AI가 이미지의 개념을 설계하고 인간이 이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하이브리드 창작 구조는, 기존의 단일 창작 주체 개념을 해체하고 작가와 작품 사이의 전통적 관계를 재구성한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해 창작 개념을 주도하는 기획자는 단순한 사용자나 조력자가 아니라, ‘예술 개념 설계자’로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1.2 연구 목적 및 ‘인공수정-대리모’ 은유의 의의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에 새롭게 부상한 ‘기획 중심의 작가성’이 지니는 철학적 타당성과 한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예술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 생성자(기획자)’와 ‘물리적 수행자(작업자)’가 분리되는 현상을 생명윤리 영역의 인공수정과 대리모 구조에 은유적으로 대응시켜 창작 기원의 본질과 저작권 귀속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생명의 ‘개념적 설계’ 단계(수정란 형성)와 ‘물리적 발육’ 단계(대리모 임신)가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구조는, AI 시대 ‘프롬프트 작성’과 ‘실물 구현’이 분리되는 창작 방식과 구조적으로 상응한다. 또한, “생명(작품)이 잉태되는 장소와 주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를 창시자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생명 윤리적 질문을 차용함으로써,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사고 실험의 틀을 제공한다.

1.3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생성형 AI와 전통 민화 화공이 협업하는 <Soaring> 프로젝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Soaring> 프로젝트는 봄바람에 실려 비상하는 새와 모란이 어우러진 동·서양 하이브리드 산수 공간을 핵심 서사로 삼고, 수묵 선묘에 분채와 금박을 병용하는 혼합 매체 표현 기법을 채택한다. 특히, 창작 과정은 기획자가 프롬프트를 설계해 ‘창작의 수정란’을 마련하고, AI가 수백여 개의 이미지를 생성하며, 최종적으로 화공이 물리적 회화로 구현하는 삼자 분업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계적 협업 모델은 AI 시대 회화창작의 주체성 재구성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주요 분석 틀을

제공한다.

1.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솔 르윗의 개념미술 이론, 미드저니의 저작권 정책, 그리고 현대 예술계의 제작 위임 모델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현 이전 단계에서도 기획자가 창작자로서의 지위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Soaring> 프로젝트의 삼자 분업 구조-기획자(프롬프트 설계자), AI(이미지 생성자), 전통 민화 화공(물리적 구현자)-를 사례로 삼아, 각 단계별 데이터(프롬프트, 파라미터 로그, 이미지 산출 결과 등)를 정량적·정성적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법을 검토하고,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외주 계약서를 제시함으로써, AI 협업 시대에 적합한 법적·계약적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개념미술과 AI 시대 창작 패러다임

솔 르윗의 ‘작품의 아이디어가 곧 예술’이라는 선언은 개념미술의 핵심 명제로, 예술 행위를 물질적 결과물이 아닌 개념적 설계로 이해하도록 초대한다 [1]. 이 관점을 피터 오스본의 ‘프로젝트 기반 예술’ 개념 [2]으로 확장하면, 작가는 더 이상 결과물을 직접 제작하는 ‘제작자’가 아니라 전체 창작 과정을 기획·조정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재정의된다. 이 패러다임에서 개념(설계)과 물질적 수행은 필연적으로 분리되며, 설계자는 손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은 결과물에도 저작자로 인정받는다. 생성형 AI는 이러한 ‘설계 중심 창작’을 기술적으로 가속화한다. 프롬프트 작성 및 파라미터 조정은 설계 단계를 ‘코드를 통한 기호 조작’으로 확장하고, AI가 생성한 이미지 중 선별·의미화를 담당하는 인간은 프로젝트의 관리·조정자로서 기능한다. 이로써 ‘수행 없는 예술’이 현실적 제작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며, 창작 주체성은 크게 두 층위-알고리즘 설계와 인간 해석-로 분리된다. 알고리즘은 자체적으로 작품을 선별·의미화할 수 없으나, 생성 과정의 무작위성을 통해 인간의 창의적 가능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AI를 협업 대상으로 인정하되, 법적 주체(저작권 보유자)로는 보지 않음을 명시한다. 이는 ‘설계 의도’를 생성한 주체와 ‘물리적 구현’을 수행한 주체를 분명히 구분하려는 논리적 전제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2.2 인공지능 대리모 은유의 구조와 적용

‘인공수정-대리모’ 은유는 창작 과정의 분리된 단계들을 생식 과정과 대응시킨다. 이들 간의 구조적 유사성을 보여주기 위해 인공수정-대리모 은유와 창작 단계 대응 도표를 [표 1]과 같이 정리

했다.

[표 1] 인공수정-대리모 은유와 창작 단계 대응 도표

[Table 1] Correspondence Between the Artificial Insemination-Surrogacy Metaphor and the Stages of Artistic Creation

생식 과정	하이브리드 창작 단계	주체	핵심 행위·기여
인공수정	프롬프트 작성	기획자	유전자 조합 결정 → 이미지·서사 설계
배아 배양	AI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	계산적 변환·잠재 공간 탐색
착상·임신	물리적 구현	화공	필묵·재료 선택·수공 변형
출산	완성 작품 공개	공동	결과물 유통·감상

2.2.1 은유의 해석적 강점

이 은유가 AI·인간 협업 창작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강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수정란을 설계한 생명공학자와 임신·출산을 수행한 대리모 사이에서 ‘부모권’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살피면, 프롬프트를 설계한 기획자와 이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화공 사이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구조적으로 모사할 수 있어 책임과 권한의 경계를 선명하게 구조화해 준다. 둘째, 대리모 논의에서 임신이 노동이자 상품으로 재편될 때 발생하는 정동적·윤리적 긴장은, 화공의 수공 노동이 기획자의 브랜드 아래 은폐될 위험과 평행을 이루어 윤리적 갈등을 가시화한다. 셋째, 각국이 체외수정·대리모를 어떻게 규제하는지 비교하면, AI 창작물의 저작권 모델을 설계할 때 정책적 시뮬레이션 장치를 제공하므로 제도 설계의 실험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2.2 은유의 한계

그러나 이 은유에는 세 가지 한계가 내포된다. 첫째, 존재론적 측면에서 생식은 물질적 생명을 산출하는 반면, 예술 창작은 상징적 객체를 생성하므로 결과물의 ontological status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둘째, 의존성의 비대칭성도 뚜렷하다. 수정란은 대리모 없이는 생존할 수 없지만, AI가 산출한 이미지는 화공의 물리적 구현이 없어도 디지털 형태로 이미 완결된 상태로 존재한다. 셋째, 알고리즘의 위치가 모호하다. 생식 과정에서 실험실과 의료진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응하는 AI 모델과 데이터셋은 행위자인지 단순 도구인지를 둘러싸고 아직 규범적 합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유는 AI 시대에 분산된 작가성과 그 재귀속 문제를 조망하는 데 유효한 개념적 렌즈를 제공한다. 그러나 물질적 생명과 상징적 객체 사이에는 결정적인 존재론적 단층이 남는다. 체외수정된 배아는 시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장·대사하며, 생물학적 개체성을 획득한다. 반면 AI 이미지와 같은 디지털 산출물은 인간(또는 기계)의 해석·매개 없이는 의미를 형성하지 못하는 비자율적 구조를 지닌다. 다시 말해, 생식은 existence를, 예술 창작은 reference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 선상에 둘 수 없다. 이러한 차이는 ‘창작 의도·승인 원칙’이 저작권 귀속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이자 한계로 작용한다.

3. 사례 분석: <Soaring> 프로젝트

<Soaring> 프로젝트는 전통 민화 언어를 AI와 결합하여 재해석하는 시도로,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창작 프로젝트이다. 세 단계의 창작 주체(기획자-AI-화공)가 순차적으로 협업하는 삼자 분업 구조로, 최종적으로는 실물 회화 5점(약 130 × 90 cm)과 AI 이미지 아카이브가 동시 전시될 예정이다.

3.1 개념 설계: 프롬프트 개발

기획자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 작품의 주제적·미학적 방향성을 설정했다. 아래는 실제 사용된 핵심 프롬프트이다:

A surreal fusion of traditional Korean Minhwa (Hwajodo) and a medieval European map, depicting an intricate landscape where mythical birds and flowers are harmoniously integrated. The artwork features a bird's-eye view of an imaginary medieval city, drawn with delicate ink lines and whimsical Minhwa brushwork. The map includes stylized rivers, mountains, and buildings, interwoven with vibrant, oversized birds, blooming flowers in traditional Korean painting colors and gold leaf. The entire scene is rich in decorative elements, combining the ornamental patterns of Minhwa with the structured layout.

이 프롬프트는 전통 민화의 재료적·형식적 특성(수묵, 채색, 산수)과 서사적 내용(봄바람, 새, 모란)을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후속 단계의 창작 방향을 제한한다.

3.2 AI 생성 단계: 시안 발굴과 선택 과정

미드저니 알고리즘은 프롬프트를 다양한 시각적 형태로 번역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동일 seed(145267)를 기반으로 stylize·chaos 값을 변주하여 200여 장의 이미지를 생성했다. [표 2]은 주요 변주의 특성을 비교 정리한 것으로, 기획자의 미학적 선택이 작품 방향성에 미치는 중요한 결정 지점을 보여준다.

[표 2] Midjourney 생성 시안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Midjourney-Generated Drafts

변주	stylize 값	chaos 값	특징
시안 A	100	20	새 형태 명확, 전통적 농담 표현
시안 B	625	40	추상적 새 모티프, 현대적 번짐 효과, 모란 강조
시안 C	250	30	절충적 스타일, 손으로 그린 듯한 효과 두드러짐

기획자는 생성된 이미지 중에서 선택·거부·재생성을 반복하며 의미화 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시안 B에서 나타난 ‘새의 비상과 바람에 모란꽃이 훑날리는 풍경이 만드는 순환적 에너지’를 최종 콘셉트로 선정했다. 이 과정은 ‘수정란-대리모’ 은유에서 ‘배아 선별’ 과정에 해당하며, 기획자의 미학적 판단이 핵심적 창작 행위로 작용한다.

3.2.1 프롬프트 조정과 시각적 결과물

결과물에서 발견된 현상은 프롬프트의 조정이 시각적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이다. 초기 프롬프트에서 ‘bird’만 언급했을 때와 ‘mythical bird’를 추가했을 때, 결과물은 현저히 달라졌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은 프롬프트 조정에 따른 이미지 변화 비교 시안 예시이다.



[그림 1] 프롬프트 조정에 따른 이미지 변화 비교 A

[Fig. 1] Comparative Image Variations Resulting from Prompt Adjustment - Case A



[그림 2] 프롬프트 조정에 따른 이미지 변화 비교 B

[Fig. 2] Comparative Image Variations Resulting from Prompt Adjustment - Case B



[그림 3] 프롬프트 조정에 따른 이미지 변화 비교 C

[Fig. 3] Comparative Image Variations Resulting from Prompt Adjustment - Case C

[그림 3]은 프롬프트 조정에 따른 이미지 변화 비교 시안 C이다. 초기 프롬프트를 적용한 [그림 1]에서는 사실적인 새 형상이 주로 생성되었으나, 신화적 맥락을 강조한 수정 프롬프트에서는 [그림 2]와 같은 구름을 타고 비상하는 새가 생성되었다. [그림 3]에서는 색이나 구성 면에서 한층 정제된 표현과 신비로운 분위기가 생성되었다. [표 2]에 제시된 파라미터 조정과 함께, 이러한 키워드 선택은 기획자의 문화적·미학적 방향 설정이 결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3.2.2 재료 지시어와 시각적 해석

또한 ‘delicate ink’, ‘Minhwa brushwork’, ‘gold leaf’, ‘ornamental’, ‘surreal fusion’라는 재료 및 시각적 해석 관련 지시어를 추가했을 때, AI는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수묵과 장식적인 요소를 융합하여 이미지에 적용했다. 이 디지털 재현은 알고리즘이 시각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다. 이는 개념 설계가 AI 번역 과정과 물리적 실현에 어떻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3.3 물리적 구현 단계: 화공과의 협업 구조

시안 선정 후, 기획자는 전통 민화 화공과 협업하여 실물 작품 제작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작 지침이 결정되었다:

재료: 장지 바탕에 분채·석채, 주요 모티프에 부분 금박 적용

크기: 130 × 90 cm

제작 기간: 3개월 (초벌 1개월, 채색 2개월)

주목할 점은 화공에게 주어진 자율성의 범위이다. 화공은 선묘와 채색의 기술적 측면에서 자율

성을 가지지만, 모티프 배치와 전체 구도는 기획자가 선택한 AI 시안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이는 ‘대리모’가 배아의 유전적 속성을 변경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한 제약이다.

4. 작가성의 법적·철학적 정당화

4.1 저작권 및 계약 분석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AI 창작물의 권리 귀속은 공공영역 귀속, 공동 저작물, 인간 단독 소유의 세 시나리오로 논의되며 [3] 법적 공백이 클수록 계약이 핵심적 결정 수단이 된다. 고용·도급 관계에서 독점적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실행자는 ‘기술적 기여자’로 제한된다. 본 프로젝트에서 기획자는 프롬프트 설계와 시안 승인이라는 창작 행위를 통해 원시적 저작권자의 지위를 주장하며, 이는 개념 중심 예술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또한, 보든의 창의성 3차원 모델은 AI의 조합·탐색 기능과 인간의 의도 설정·승인 행위가 결합된 분산적 창작 구조를 설명하며, 이는 전통적인 단일 주체 중심의 창작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다 [3]. 미드저니(2025-02-05 개정) 약관 역시 이 분산 구조를 전제한다. 산출물 소유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미드저니가 영구·전세계·재라이선스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모든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공개되며, 리믹스가 가능하다 [4]. 즉, 소유는 사용자에게, 통제는 플랫폼에 귀속되는 구조로, 저작권의 불확실성은 계약을 통해 선점된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공백은 생성형 AI의 저작물 귀속 문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 부재를 보여준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AI 산출물의 보호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법원 및 의회 간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판례와 가이드 라인은 여전히 형성 중이다 [6]. 이와 같은 환경에서 기획자는 프롬프트 설계와 시안 선택이라는 의도·승인 행위를 통해 AI와 화공을 기획·조정하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단독으로 확보하게 된다.

4.2 기획자 단독 작가성의 정당화 논리

저작권법상 창작물은 ‘표현’뿐 아니라 ‘표현을 지시·승인한 의도’까지 포괄해 보호된다는 점에서, 창작 의도와 최종 승인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이다. 현대 저작권법은 물리적 제작 이전 단계에서도 ‘작품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창작자의 의도 및 최종 선택·승인 행위를 핵심적 창작 행위로 본다 [5]. 이는 영화·애니메이션 제작에서 시나리오 작성자·감독에게 저작권이 우선 귀속되는 관행, 건축에서 건축가의 설계 도면이 실물 시공보다 우선하는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수정란-대리모’ 은유에 따르면, 프롬프트 설계는 수정 단계에서 창작 의도를 결정짓는 행위이고, AI 출력물 가운데 최종 시안을 선택하는 과정은 승인 행위에 대응한다. 즉, 두 행위가 결합해 창작자 지

위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획자는 물리적 채색(대리모 단계) 이전에도 이미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 주체가 된다. 그리고 AI는 의도, 승인 능력이 없으므로 인간 기획자만이 저작자 자격을 충족한다.

기획자의 단독 작가성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다:

- 업무상 저작물 조항: 한국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5] 및 미국 저작권법 [6]은 고용·도급 관계에서 생산된 저작물의 저작자 지위를 사용자(고용주/발주자)에게 귀속시킨다.

- 미드저니 약관 활용: 미드저니는 이용자에게 산출물 소유권을 부여하므로, 기획자는 이 조항을 기반으로 ‘산출물 소유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4].

이러한 법적 틀을 <Soaring> 프로젝트에 적용하면, 기획자는 미드저니 약관에 따른 AI 산출물의 소유자이자, 화공과의 도급 계약에 따른 실물 작품의 저작권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4.3 철학적·미학적 정당화

기획자의 단독 작가성은 철학적·미학적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첫째, 솔 르윗의 개념미술 이론에서 제시된 ‘아이디어가 기계를 작동시킨다’ [1]는 논리는 AI 프롬프트 설계에서 더욱 구체화되며, 이는 지시문 기반 창작으로서의 정당성을 지닌다. 둘째, 보리스 그로이스가 말한 ‘선택과 배치’의 큐레이토리얼 권력은 수많은 AI 산출물 중 시안을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기획자의 역할과 직접 연결된다 [7]. 셋째, 기획자는 프롬프트 설계, 시안 선정, 화공 지시, 전시 맥락화 등 전 과정에 개입하며, 창작에 대한 윤리적·법적 책임도 감수한다. 이처럼 기획자의 행위는 단순한 기술 사용이 아니라, 개념 설계와 결정, 의미화, 책임 수행을 포함하는 창작의 총체로 이해된다. 따라서 작가성은 물리적 실행보다 복합적이고 관념적인 결정 과정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5. 실무적 적용을 위한 계약 및 작업 가이드라인

5.1 <Soaring>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 구조

[표 3]은 <Soaring> 프로젝트 외주 용역 계약서 예시이다.

[표 3] <Soaring> 프로젝트 외주 용역 계약서

[Table 3] <Soaring> Project Outsourcing Agreement

<Soaring> 프로젝트 외주 용역 계약서	
체결일:	2025년 9월 1일
당사자	
	· 갑(기획자): ○○○
	· 을(민화 작가): ○○○

제1조(목적 및 정의)

본 계약은 갑이 AI로 생성한 시안을 을이 전통 민화 기법으로 구현하는 용역에 관한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AI 시안:** 갑이 Midjourney v5, v6로 생성한 디지털 이미지 200여점
2. **최종 결과물:** AI 시안 중 선정된 5점을 전통 채색화 기법으로 구현한 회화 작품, 갑의 사진 및 리터치가 추가될 수 있다.

제2조(용역 내용)

1. 을은 갑이 선택한 AI 시안 5점을 민화 채색 기법으로 제작한다.
2. 작업 일정: 샘플 제작(1주) → 중간 검토 → 최종 완성(2-3주)
3. 을은 완성된 회화 작품과 고해상도 디지털 파일을 갑에게 인도한다.

제3조(저작권)

AI 시안 및 최종 결과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재산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4조(보수)

1. 총 보수: 350만원(부가세 별도)
2. 지급 일정:
 - 계약 체결 시: 20% (70만원)
 - 중간 검토 완료 시: 30% (105만원)
 - 최종 인도 시: 50% (175만원)

제5조(계약 기간 및 해지)

1. 계약 기간: 2025년 9월 1일 ~ 2026년 1월 31일
2. 중대한 계약 위반 시 14일 시정 기간 후 해지 가능
3. 조기 해지 시 완료 비율에 따라 보수 정산

제6조(기타)

1. 준거법: 대한민국 법령
2. 분쟁 시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해결
3. 계약 관련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계약 종료 후 2년간 유효)

갑(기획자): _____ (인)

을(민화 작가): _____ (인)

5.2 화공과의 외주 계약 핵심 조항

① 저작권 및 크레딧 구조:

- **제3조(저작권 귀속):**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AI-민화 하이브리드 작품의 저작권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기획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화공은 전통 기법 구현자로서 작품 크레딧에 ‘기술 협력(Technical Collaboration)’으로 명기된다.
- **제7조(작업 과정 관리):** 화공은 작업 진행 단계별로 사진 기록을 작성하여 주 1회 기획자에게

전송하며, 모든 주요 결정사항은 서면(이메일, 메신저)으로 확인한다. 이는 창작 과정의 투명성과 기획자의 최종 결정권을 보장한다.

- 제9조(저작인격권 조정): 화공은 완성된 하이브리드 작품에 대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나, 전통 기법 전문가로서의 기여는 전시 및 출판물에 적절히 명시된다.

② 계약 모델의 특징:

이러한 계약 구조는 전통적인 용역 제작 모델(work-for-hire)을 AI 시대의 하이브리드 창작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지닌다. 첫째, AI 기획과 전통 기법의 구현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기획자의 단독 저작권을 법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화공의 전문성을 기술적 협력으로 명시함으로써 상호 존중의 협업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권리 구도를 명확히 한다. 셋째, 창작 과정의 각 단계를 기록하고 검증하는 체계를 통해 전반적인 창작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구조는 AI와 전통 예술의 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각 참여자의 역할과 기여를 명확히 규정하는 실무적 대안을 제공한다.

5.3 기획자 단독 귀속을 위한 체크리스트

<Soaring>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AI-화공 하이브리드 창작에서 기획자 단독 작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 4]는 AI-화공 하이브리드 창작에서 기획자 단독 작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AI-화공 하이브리드 창작에서 기획자 단독 작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Table 4] Checklist for Securing Sole Authorship of the Project Director in AI-Painter Hybrid Creation

단계	기획자 독점 귀속을 위한 조건	실천 도구
프롬프트·컨셉 설계	텍스트 기록·버전 관리로 독창성 증빙	Notion / Git
AI 시안 선택·편집	선택 근거·거부 시안 아카이빙	Digital Asset Manager
화공 계약 체결	‘업무상 저작물+저작권 양도’ 조항 삽입	표준 외주 계약서
최종 승인·서명	서명 날짜·버전·배포 매체 명기	디지털 증명서(PDF)
윤리·법적 검증	데이터 출처·저작권 클리어런스	ML dataset ledger

이 체크리스트는 기획자가 창작 과정의 각 단계에서 자신의 창작적 기여와 결정을 명확히 기록·증명함으로써, 법적·미학적 차원 모두에서 단독 작가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5.4 실무적 쟁점 및 해결 방안

술 르윗이 제시한 개념미술의 핵심은 작품의 가치는 개념에 있으며, 실현 여부는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이 입장을 AI 시대에 적용하면, 프롬프트 설계와 시안 승인이라는 ‘개념 입력 단계’가 이미 작품의 본질을 성립시키며, 물리적 채색은 실행을 대신하는 기술적 절차에 불과하다. 동시에 현대 미술 현장에서 큐레이터가 공간·맥락·내러티브를 조직함으로써 전시 저작권을 인정받듯이, 본 프로젝트의 기획자는 AI·화공·관객 간 관계망을 설계해 결과물의 의미 체계를 구축한다. 따라서 개념미술의 ‘아이디어 우선성’과 큐레이션의 ‘관계 형성 권능’을 결합하면, 기획자의 창작 의도와 승인 행위만으로도 독립적 작가성이 성립한다는 철학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6. 결론

6.1 연구 요약 및 주요 발견

이 은유는 AI-인간 협업 창작을 이해하는 데 두 가지 주요 통찰을 제공한다. 첫째, 수정란을 설계한 생명공학자와 임신·출산을 담당한 대리모 사이의 ‘부모권’ 배분 문제를 살피면, 프롬프트를 설계한 기획자와 이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화공 사이의 저작권 귀속 관계를 구조적으로 모사할 수 있어 책임·권한의 경계를 선명히 드러낸다. 둘째, 대리모 담론에서 임신이 노동이자 상품으로 재편될 때 발생하는 정동적·윤리적 긴장은, 화공의 수공 노동이 기획자의 브랜드 아래 은폐될 위험과 평행을 이루어 AI 창작 과정의 윤리적 갈등을 가시화한다.

6.2 이론적·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개념미술 전통과 AI 협업 모델을 접목해 ‘프롬프트 설계-승인’ 과정을 핵심 창작 행위로 재정의함으로써, 기획자 단독 작가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작품 가치 평가의 무게중심을 ‘제작’에서 ‘개념·기획’으로 이동시켜 현대 미술 담론을 확장하며, 실천 차원에서는 AI-인간 협업 계약의 표준 조항, 학습 데이터 윤리 가이드라인, 그리고 예술교육 커리큘럼 설계 등에 즉각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공한다. 나아가 플랫폼·실현자·기획자 간 권리 배분 구조를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미술 시장과 정책 입안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질적 준거틀을 마련한다.

6.3 연구 한계 및 후속 과제

본 연구가 미드저니 사례와 한국·미국 저작권 체계에 집중한 결과, 다른 생성형 AI 플랫폼 및 EU·영국 등 타 관할권 논의를 충분히 아우르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화공의 저작권격권 포기 조항과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개념적 수준에서만 다루어 실증적 검증이 미흡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EU AI Act·영국 DCMS 보고서 등 국제 규범을 비교 분석하고, 실제 분쟁

사례를 통계적으로 검토해 법적 타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AI 모델과 전통 미술 장르를 포함한 폭넓은 사례 연구를 통해, ‘인공수정-대리모’ 은유의 적용 범위와 한계도 재검증해야 할 것이다.

6.4 맺음말

AI는 예술에서 단순한 손의 대체를 넘어, 아이디어를 해석하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가성은 물리적 실행이 아닌 개념, 판단, 책임의 집중 지점에서 형성된다. <Soaring> 프로젝트는 기획자가 법적·철학적·미학적으로 단독 작가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계약, 과정의 투명한 기록, 윤리적 검토를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인공수정-대리모 은유는 AI 시대의 창작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이지만, 그 한계 또한 자각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예술가는 ‘무엇을’, ‘왜’, ‘어떻게’ 만들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존재다. 이러한 역할 수행 방식은 향후 예술 창작자와 연구자 모두가 탐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References

- [1] S. LeWitt, “Paragraphs on Conceptual Art”, *Artforum*, vol. 5, no. 10, June 1967, pp. 79-83.
- [2] P. Osborne, *Anywhere or Not at All: Philosophy of Contemporary Art*, London, UK: Verso, 2013.
- [3] Midjourney Inc., “Terms of Service”, docs.midjourney.com, https://docs.midjourney.com/hc/en-us/articles/32083055291277-Terms-of-Service#h_01JD8G8KYZ5KTCT2R7W0KM79PZ, (accessed May 6, 2025).
- [4] M. A. Boden, *The Creative Mind: Myths and Mechanisms*, 21th Books, 2010.
- [5]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opyright Act [Act No.19592, August 8, 2023]”, law.go.kr,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jsessionid=fryEETbtGjfp2ZDzVwf9wq1W.LSW11?lsId=000798&chrClsCd=010102&lsRvsGubun=all>, (accessed May 6, 2025).
- [6] Cornell Law School, “17 U.S. Code § 101 - Definitions”, law.cornell.edu,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7/101>, (accessed May 6, 2025).
- [7] B. Groys, “Curating in the Post-Internet Age”, in *A Companion to Digital Art*, C. Paul, Ed., Hoboken, NJ, USA: Wiley-Blackwell, 2016, pp. 244-257.